

동해시,「제8회 한국지방

자치단체 회계대상‘우수상’

동해시는 12월 11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제8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제5회 우수상, 제6회 장려상, 제7회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수상으로, 동해시의 회계 투명성과 재정운용 역량이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용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 지자체를 선정하는 상이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

동해시는 ▲회계 인프라 구축 ▲회계·재정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 ▲회계 재정 관리의 건전성 ▲회계 정보 공시 등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회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체계적인 회계 인프라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개인 분야 공로상 수상자인 前 회계과 이미순 주무관은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영월군 주천면, ‘청정링크

건축공사’본격 착공

영월군 지역개발실 도시재생팀에서는 주천면 인구 증가 및 인구 유출 방지와 친환경 유기농 농업 교육생 육성을 위한 교육·생활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청정링크 건축공사를 본격 착공하였다.

청정링크 건축공사는 총사업비 약 70억 원을 투입해 LH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천면 주천리 1133-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 면적 1,299.94㎡ 규모로 조성한다. 건물 내부에는 게스트하우스·회의실·공용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교육과 회의 및 단기 체류가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천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인근에 조성 중인 동네행복이웃터 신축과 연계해 지역 내 생활·교육·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정영교 지역개발실장은 “청정링크와 동네 행복이웃터 신축과 조성사업은 주천면 도시재생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라며, “2027년 사업 완료 시 문화·생활·교육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되어 지역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한 일자리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유기농 농업을 배우려는 귀농·귀촌인에게는 소독과 연계된 교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첫해 성과‘가시적’으로 나타나

11월 기준 방문객 1억 4,364만 명(전년대비 3.1% 증가)

2026년, 실질 혜택 제공으로 소비 확대 및 재방문 유도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본부장 손창환)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추진 결과, 2025년 11월 말 기준 방문객이 전년 대비 430만 명(3.1%) 증가한 1억 4,364만 명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2024. 11월 말 기준 방문객 : 1억 3,935만 명

도는 2024년 11월 25일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선포 이후, 강원도의 매력을 집중 홍보하고 다양한 특화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등 방문객 유치에 힘써 왔다.

매월 2개 시군을 ‘이달의 추천지’로 선정·홍보하고 이와 연계한 ‘강원 관광 숙박대전’을 통해 숙박할인권 지원으로 약 2만 명의 투숙객을 유치했으며, 방문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강원 관광 웰린지’에는 방문 인증과 소비 인증을 합쳐 1만 5천여 명이 참여하였고, 지난 6월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 레저티켓 할인 기획전을 진행하여 총 1,426건, 40,819천 원의 실 결제금액을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강원 방문의 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홍보영상 제작하여 113만 회의 조회수를 달성하고, 부천역 및 서울역 거리캠페인과 각종 행사와 연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2025년 직장인 여름 휴가지 선호도’ 조사 1위를 비롯한 각종 지표 등에서 압도적으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여름철 강원 해수욕장 방문객은 86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7만 5천 명(11.3%) 증가,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는 등 도가 추진한 사업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2026년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 방문 혜택과 수도권 집중 홍보 전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방문객이 숙박·소비 영수증을 인증할 경우 강원상품권을 제공해 지역 소비 확대와 재방문 유

도로 이어지도록 하고, 카드사 등 협업한 ‘강원 관광 상생캠페인’을 통해 도내에서 카드 소비 시 일정의 리워드를 제공하여 관광 소비를 촉진하게 하며, 18개 시군 통합 브랜딩 체계를 기반으로 수도권 인구 밀집장소 등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강원 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강원관광재단,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원 방문의 해의 효과가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진, 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행정기능을 중단 없이 유지하기 위해 필수업무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기능 연속성계획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훈련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능 연속성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대응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민석 기자

응급부터 소아진료까지…강릉시, 의료공백 없는 도시 선도

김홍규 강릉시장, 16일 필수의료 현장 방문해 의료 현장 목소리 청취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예방의료를 강화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김홍규 시장은 16일(화)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강릉아산병원은 영동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최근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응급·심혈관·소아청소년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 분야에서 지난 12월 4일(목) 강원특별자치도 및 영동생활권 9개 시군 간의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월)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등 새로운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를 선보이며 지역 동반성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강릉시도 응급의료와 필수 진료과

기능 유지를 위해 강릉아산병원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육성 수당 등을 지원하여,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16일(화) 일 1,200여 명이 이용하는 병원 급식소를 방문하는 김홍규 시장은 의료종사자 개개인에게 직접 배식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영동권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응급실 종사자 및 병원장 등과 함께 상생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은 “현장 의료진의 고충을 듣고 격려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강릉시의 선제적인 대응에 힘입어 강릉아산병원은 지역사회가 변화를 체감하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병원 종사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강릉시가 앞장서 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터이 다듬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민원실서 여권 발급받고 편안한 연말

평창군은 여권 발급을 받기 위해 먼 길을 한 민원실 방문객에게 홍보 물품을 600명 선착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여권 홍보 물품 제작은 여권 발급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한 평창군의 민원 행정서비스 강화 노력의 일환이다.

홍보 물품은 실용성을 가미한 여행용 파우치로 2018 올림픽 개최지이자 눈의 도시 평창을 배경으로 귀여운 평창군 공식 캐릭터‘눈둥이’가 여권 발급 안전 사항 및 편리한 재발급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대상은 평창군청 민원실에서 생애 최초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방문객 전원이다. 홍보 물품 제공은 한정 수량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이번 여권 홍보 물품에는 재발급 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안내하고 있어 향후 민원인들의 여권 발급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안전한 여행을 위해 캐릭터‘눈둥이’와 ‘별별상상 평창’ 문구를 넣은 여권 보호용 케이스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 업무 담당자는 “여권 발급을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 행정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붉은 말의 해에도 군민들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주시, 법정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

원주시는 12월 16일(화) 시청사 입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초 ‘환경교육도시’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환경교육 성과와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자체를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원주시는 내년부터 시 전역의 환경교육 확산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원주형 지역 특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장수 원주시장은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앞으로 우리시는 환경교육 확산을 통해 행복한 환경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춘천시, 중국 우시시와 바이오산업 협력 강화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16일 우호협력도시 중국 우시(无錫)시 관계자들과 바이오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춘천시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성북구에서 중국 우시시 과학기술국을 비롯해 하이테크산업개발구 과학공업국, 바이오의약산업발전촉진센터, 생명과학산업발전유한회사 등 우시시 상하기관 및 바이오 관련 기업 관계자 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방한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도시는 주요 행사에 대표단과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춘천시는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그린바이오 국제심포지움’과 ‘강원바이오 엑스포’에 우시시 전문가들과 바이오기업의 참여를 제안했다.

특히 춘천시는 ‘그린바이오 국제심

포지움’과 관련 우시 장난대학교(江南大学)의 전문가 참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장난대학교는 바이오공정, 식품과학, 생명공학 분야에서 중국 내 선도적인 연구 역량을 보유한 대학으로 향후 연구기관 간 교류 협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기술 및 산업 동향 정보 교류 △기업 간 전시 참가 및 실무 연계 △연구기관 간 교류 확대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오징(鮑靜) 중국 우시시 과학기술국 부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춘천시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다방면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실무 차원의 교류를 지속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우시시와의 실질적 바이오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양 도시가 가진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까지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수원도시공사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신호탄
수도권 첨단과학 클러스터의 중심

탐동 이노베이션벨리

